

서 면 질 문 요 지 서

질문 의원명	노 미 경	소 속	행정복지위원회
질 문 주 제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관하여		
제출 연월일	2024. 3. 19.		
질 문 요 지			
☐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관하여 ○ 현재 울산시에서 제시한 개편안은 경제적 효율성에 초점을 둔 결과로, 시행 이후에 군민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 울주군 행정은 ‘군민의 교통권을 보장하는 교통복지 대책으로서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대해 신중하게 추진해 줄 것’을 울산시에 강력하게 피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 현재 울주군 내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관련하여 군의 검토 사항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서 면 질 문 서

질문 의원명	노 미 경	소 속	행정복지위원회
질 문 주 제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관하여		
울주군민의 삶에 스며드는 행복울주를 만들어 나가시는 이순걸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의원입니다. 올해 8월, 울산시는 시내버스 183개 노선(21개 시내·지선·마을 버스, 928대)에 대해 전면 개편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는 불합리한 노선 정리 및 순환 노선 신설과 편리한 환승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배차간격을 4분가량 줄이고, 이용객을 10% 늘려 약 129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통신사 신호 기반 유동 인구, 교통카드 및 버스 운행 데이터 등 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상 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기존 운행 노선을 폐·감차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결정인지 의문이 듭니다. 2023년 ‘울산광역시 사회조사’에 따르면, 울주군의 ‘시내·마을 버스 이용 불만족 이유’는 긴 배차간격(49.9%)과 운행노선 부재 (16.6%)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23년 ‘울주군 사회조사’에 따르면, ‘대중교통 노선’에 대해 2022년 대비 3.3% 증가한 31.5%가 불만족했으며, ‘대중교통 운행횟수’에 대해서도 2022년 대비 3.9% 증가한 35.5%가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로 보아, 데이터상 수요가 적다는 것은 단순히 유동 인구가 적은 것이 아닌, 시내버스를 이용하고자 했으나 기존 시내 버스 노선체계에 대한 애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음을 시사합니다.

아울러, 현재 폐선 예정된 울주군 운행 노선은 학교가 위치한 신북과 언양읍 연결 노선(133번, 307번), 천상에서 중구와 동구 연결 노선(123번), 상북면·삼남읍에서 남구 연결 노선(304번, 1703번) 등입니다.

해당 노선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주민설명회를 통해 학교·직장 통학 및 병원 이용 등의 이유로 많은 학생, 청년,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그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즉, 개편안은 지극히 경제적 효율성에 초점을 둔 결과로, 폐선에 따른 환승 이용은 고령자 비율이 높은 군 실정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곽지역 군민의 고립감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주 이용층인 교통약자(학생·청년·노인·장애인·임산부 등)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등의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민의 이동 편의성은 물론, 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울산시 소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내버스는 대중교통 다양성이 부족한 울산에서 가장 중요한 교통 수단입니다. 따라서, 군민의 일상생활에도 직접적인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경제적·지역적·신체적·사회적 여건에 상관없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울주군 행정에서는 ‘군민의 교통권을 보장하는 교통복지 대책으로서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대해 신중하게 추진해 줄 것’을 울산시에 강력하게 피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울주군 내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관련하여 군의 검토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모든 국민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